

〈번역논문〉

‘동(부)유라시아사’라는 사고방식* - 최근 일본에서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의 신동향

임슬기**

〈목차〉

- I. 머리말
- II. ‘동(부)유라시아사’의 계보 1 - 중앙유라시아사의 계보
- III. ‘동(부)유라시아사’의 계보 2 - ‘동아시아 세계론’ 비판의 계보
- IV. ‘동(부)유라시아사론’ 비판
- V. ‘동(부)유라시아 세계’인가 혹은 ‘동(부)유라시아’인가
- VI.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 학술잡지의 하나인 『歴史評論』은 2016년 11월호(799호)에서 ‘2016년 역사학의 초점’이라는 특집을 발행하였다. 그 중 동아시아 연구사를 담당한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중국근대사 및 근대

* 古畑徹(후루하타 도루), 「東(部)ユーラシアという考え方 -近年の日本における古代東アジア史研究の新動向」, 古畑徹 編, 『高句麗・渤海史の射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の新動向』, 汲古書院, 2022를 번역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는 그 논고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사학의 초점’을 特集으로 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동아시아’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초점’이었던 적이 있는가? (중략)

외부로부터의 접근뿐만이 아니다. ‘동아시아 연구’의 내부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한때는 唐代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라는 독자의 세계질서가 존재했다고 보고 그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는 거의 같은 시기와 지역을 ‘동부유라시아’라 바꾸어 부르고 있다. 10세기 이전에 한정하지 않는다. 시대가 더 흐른 소위 ‘근세’ 이후도 ‘유라시아’가 유행이다. 이른바 ‘중앙유라시아 세계’ ‘유라시아 동부’ 등등. 아무래도 ‘동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死語가 되어 소멸할 수도 있는 추세이다.¹⁾

오카모토는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라는 단어가 “死語가 되어 소멸할 수도 있는 추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카모토의 표현에는 ‘동아시아’라는 용어 자체에 독자의 관심을 향하게 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찍이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성행했던 중국 당대사와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2010년 전후부터 ‘동유라시아 세계’ ‘동부유라시아’ ‘유라시아 동부’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종래의 ‘책봉체제론’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여 하나의 조류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²⁾ 그

1) 岡本隆司, 「『東アジア』と『ユーラシア』 - 「近世」「近代」の研究史をめぐって, 『歴史評論』 799, 2016, 37~38쪽.

2) 文部科學省의 ‘2007년도 사립대학 학술고도화 추진사업’에 채택되어 설치된 專修大學의 ‘동아시아세계사 연구센터’는 5년간의 연구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2년간의 공백을 거쳐 문부과학성의 ‘2014년도 사립대학 전략적 연구기반형성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고대 동유라시아 연구센터’가 되었다. 이 변화는 그간의 연구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와 동시에 근래 수년 동안 ‘동(부)유라시아³⁾ 사론’이라고도 칭해지는 이러한 사고방식[考え方]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아졌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여기에서는 10세기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시스템·국제관계·국제교류에 관계된 연구를 가리킴) 현황을 ‘동(부)유라시아사’라는 새로운 광역적 틀의 사고방식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일본의 해당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II. ‘동(부)유라시아사’의 계보 1

- 중앙유라시아사의 계보

2010년 전후부터 ‘동유라시아’ ‘동부유라시아’ ‘유라시아 동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최근 경향의 선구가 된 연구자를 10세기 이전을 다루는(연구)자에 한정해서 보면 동양사에서는 모리베 유타카(森部豊)·스가누마 아이고(菅沼愛語), 일본사에 대해서는 히로세 노리오(廣瀬憲雄)·야마우치 신지(山内晋次)·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가 있다. 다만 이 용어에 담긴 지역설정이나 문제의식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개념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우선 이 개념의 차이부터 검토하겠지만, 그 전에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明清史의 우에다 노부(上田信)의 견해부터

3) 논자에 따라 ‘동유라시아’ ‘동부유라시아’ ‘유라시아 동부’ 등의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들을 총칭하여 ‘동(부)유라시아’라고 하고 개별 논자가 사용한 표현과 구별하기로 한다.

4) [역자주] ‘考え方’는 그 외에도 사고방법, 구상 등의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그 명문 단어를 ‘Concept’이라고 하였다.

살펴보자.

우에다 노부는 2005년에 출판한 『중국의 역사 9, 바다와 제국: 명청시대』에서 ‘동유라시아’를 일본해·발해·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라는 5개 바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와 접한 육지와 도서로 구성된 공간에 시베리아 동부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티베트고원·몽골고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일본·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일부를 포함 시킨 지역⁵⁾이라고 규정하였다. 단 우에다는 어디까지나 14~19세기의 중국사, 즉 명청 시대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광역적 틀로서 ‘동유라시아’를 제창한 것이며 언제 어떠한 시대의 중국이해, 또는 이 범위에 포함 된 지역들의 역사, 혹은 이들의 국제관계·국제교류의 역사 등을 보는 경우에도 적합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다음 해에 출판한 『동유라시아의 생태환경사』에서는 통합성[まとまり]⁶⁾을 지닌 역사적 무대로서의 동유라시아의 탄생은 몽골제국이 大理를 멸망시켜 몽골고원과 운남이 이어지게 된 1253년이라고 서술하였다.⁷⁾ 우에다에게 있어서 동유라시아란 육지의 교역로와 바다의 교역로가 하나로 연결된 몽골제국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광역적인 틀이며 여기에는 교역권의 관점이 짙게 포함되어 있다. 10세기 이전의 해당 지역을 다루는 연구자는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동양사 연구자의 시각에서 검토해 보자. 첫째, 모리베 유타카의 견해인데, 동방으로 진출하여 유목화한 소그드인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모리베가 2010년에 출판한 『소그드인의 동방활동과 동유라시아 세계의

5) 上田信, 『中國の歴史9, 海と帝國: 明清時代』, 講談社, 2005, 31~44쪽.

6) [역자주] ‘まとまり’는 통합, 통합성, 통합체, 덩어리 등의 번역이 가능하다. 이하에 서는 문장에 따라 번역의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7) 上田信, 『世界史リブレット 83, 東ユーラシアの生態環境史』, 山川出版社, 2006, 78~82쪽.

역사적 전개』에서 그가 사용한 ‘동유라시아 세계’라는 용어는 파미르고원 동쪽의 유라시아를 의미하며 “중국 세계와 북아시아 세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국·북아시아·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역사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설정이라고 말한다.⁸⁾ 여기에는 중앙유라시아사와 중국사를 연관시키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고, 우에다 노부에게 보이는 해석을 포함한 시점은 없다. 또, 모리베는 그 후의 논고에서 소그드인의 동방활동 연구가 지닌 의미에 대해 “이를 통해 중국사라는 것을 상대화하고, 파미르 이동의 공간(동유라시아 세계)에서 전개된 역사가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그것은 반드시 漢人만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묘사할 수 있다”⁹⁾ 고 하여 중국사를 상대화하는 시점 및 漢人 중심의 歷史像을 상대화시키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모리베는 ‘동유라시아’라는 용어를 왜 채용했는지에 대해 “북중국과 그 북쪽에 펼쳐진 몽골·만주를 하나로 묶여진 역사적 공간으로 간주하여” 역사 事象을 이해하는 “역사학적 접근법은 ‘중국사’가 아니고, ‘동아시아사’에서는 일본과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중앙유라시아사’라고 하기에는 그 대상 지역이 동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잠정적으로 ‘동유라시아사’라고 부르고 있다”¹⁰⁾ 라고 하였다. 모리베가 말하는 동북아시아는 만주로 한정되고 그가 말하는 ‘동유라시아’ 안에는 일본과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8) 森部豊, 『ソグド人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 9쪽.

9) 森部豊, 「ソグド人と東ユーラシアの文化交渉 -ソグド人の東方活動史研究序説」, 森部豊 編, 『アジア遊學 175, ソグド人と東ユーラシアの文化交渉』, 勉誠出版, 2014, 10쪽.

10) 森部豊, 「新·中國學のヒント(7): 東ユーラシア史學」, 『東方』 356, 2010, 9쪽.

모리베의 ‘동유라시아’라는 지역설정 및 그 용어에 담긴 중앙유라시아사와 중국사의 연관이라는 시점과 중국사의 상대화라는 문제의식은 ‘동유라시아’ 및 그와 유사한 ‘유라시아 동부’ ‘유라시아 동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10~13세기 ‘유라시아 동방’의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瀟淵體制’를 제창한 후루마쓰 다카시(古松崇志)는 스스로 언급한 ‘유라시아 동방’에 대해 ‘동아시아’와 ‘북아시아’를 나누어 생각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중국사를 유라시아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시점에서 넓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개념으로서 ‘유라시아 동방’을 설정하였으며”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덩어리를 강하게 의식한 개념이고 대략 파미르 이동의 공간을含意하고, 중국본토·한반도·만주·동시베리아·몽골·하서회랑·동투르크스탄·티베트·雲南·인도차이나반도 등의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¹¹⁾ 다루는 시대의 차이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에다와 같이 해역세계를 포함하지는 않고 그 범위의 핵심 부분은 모리베의 지역설정과 거의 동일하고 문제의식은 유사하다.

이러한 공통인식의 배경에는 이 지역 개념이 90년대 이후 현저하게 진전된 중앙유라시아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했다는 점이 있다. ‘중앙유라시아’라는 개념은 헝가리 출신의 알타이 학자 데니스 사이노어(1916~2011)가 20세기 중반에 제창하였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1963년에 『중앙유라시아 연구입문』을 프랑스어로 출판하고 나서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에 『민족의 세계사』 시리즈 1권이 『중앙유라시아의 세계』¹²⁾ 라고 제목을 붙여 출판되고 나서 널리 사용되었다. 사이노어는 우

11) 古松崇志, 「10~13世紀多國並存時代のユーラシア(Eurasia)東方における國際觀係」, 『中國史學』 21, 2011, 121쪽.

12) 護雅夫·岡田英弘 編, 『民族の世界史 4, 中央ユーラシアの世界』, 山川出版社, 1990.

랄 알타이계 민족들이 거주하는 광대한 공간을 ‘중앙유라시아’라고 지칭했지만, 원래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에는 애매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내륙아시아’에서는 이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에 밀접하게 걸쳐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 ‘내륙아시아’도 초원의 유목민세계인 ‘북아시아’와 오아시스를 주체로 한 동서교섭사의 색채가 강한 ‘중앙아시아’를 병립시켜 티베트에 대한 처리 등에 혼란이 생긴 戰後(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학의 지역구분에 대한 비판으로 태어난 것으로 이들을 포괄하고 일체화 된 역사적 통합체로 파악하기 위한 용어로 1970년대부터 사용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럽 부분을 표현할 수 없는 불충분함이 있고 또 종래의 유럽중심주의 사관을 바로잡는 의미도 담아 ‘중앙유라시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¹³⁾

‘중앙 유라시아’라는 큰 시야를 가진 연구 성과의 하나는 고비사막 남쪽의 半초원·半사막지대와 華北 농경지대의 접점으로 농경과 유목이 공존하는 ‘농목접양지대’(농업 = 유목 경계지대. 현재의 河北省 北部에서 甘肅 省에 이르는 지역)가 중국사의 역동성을 낳은 중요한 장소였다는 지적이다.¹⁴⁾ 이 사고방식(혹은 구상)에 의하면 중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적 세계만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앙유라시아 세계의 동방과 일체라는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 모리베와 후루마쓰 등의 연구는 바

13) 이러한 ‘중앙유라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일본에 수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杉山清彦, 『中央ユーラシア世界 -方法から地域へ』, 羽田正 編, 『地域史と世界史』, ミオルヴァ書房, 2016; 小松久男, 『總說』, 小松久男·荒川正晴·岡洋樹 編, 『中央ユーラシア史研究入門』, 山川出版社, 2018을 참조하였다.

14) 妹尾達彦, 『長安の都市計劃』, 講談社, 2001; 森安孝夫 『興亡の世界史 5,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2007; 石見清裕, 『ラティモアの辺境と漢~唐の中國北邊』, 唐代史研究會 編,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刀水書房, 1999.

로 중국과 중앙유라시아 동방을 일체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괄하는 지역 명칭을 붙인다면 중국 중심의 의미가 강한 ‘동아시아’는 부적절하며 ‘동(부)유라시아’가 최적일 것이다. 동양사에 있어서 ‘동(부)유라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이러한 중앙유라시아 역사 연구가 진전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공통인식이 있는 일반적인 이해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동양사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2009년경부터 ‘동부유라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스가누마 아이고는 그 지역을 “중화문명권을 핵심으로 하고 그것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전쟁과 외교라는 직접적인 교섭을 계속적으로 행한 주변 나라들을 포괄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화, 티베트,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부, 동북아시아, 한반도, 일본, 雲南이라고 하고 이를 동아시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동아시아가 “중화·한반도·일본 등을 포함하지만” 그 외의 티베트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고, 또 “동아시아·북아시아·티베트·중앙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에 대한 지리용어로는 동부유라시아가 가장 적절하기”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 거기에는 중국의 상대화나 중앙유라시아사와 중국의 연관이라는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고 그 범위도 호리 도시카즈(堀敏一)가 말하는 ‘동아시아 세계’¹⁶⁾와 거의 다르지 않다. 그 때문인지 중앙유라시아사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해당 저서에 대한 비판의 한 포인트가 되었다.¹⁷⁾ 또한 호리의 ‘동아시아 세계’ 개념

15)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溪水社, 2013, 4쪽.

16)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 中華の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1993(호리 도시카즈 저, 정병준 등 역,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同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94; 同, 『東アジア世界の形成 - 中國と周邊國家』, 汲古書院, 2006.

17) 齊藤茂雄, 「書評: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唐代史研究』 18, 2015는

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지만, 이것은 일본 고대사 연구자의 '동(부)유라시아' 개념의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뒤이어 서술하겠다.

Ⅲ. '동(부)유라시아사'의 계보 2 - '동아시아 세계론' 비판의 계보

다음으로 일본 고대사 연구자의 '동(부)유라시아' 개념에 대해 먼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히로세 노리오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외교문서와 외교의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 고대 일본을 자리매김하는 연구를 진행해 온 히로세는 '2010년 역사학연구대회'를 계기로 종래 본인이 사용해온 '동아시아'를 동양사에서 사용되던 '동부유라시아'로 수정하고 이후 '동부유라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고대 일본을 고찰하였다.¹⁸⁾ 그 때문에 히로세가 사용한 '동부유라시아'의 범위는 동양사 일반의 그것에 일본을 더한 것이고 그 의미에서 그의 지역개념은 '중앙

이 점을 선행연구에 대한 미비점으로 엄하게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와는 다른 문제의식으로 '동부유라시아'를 제목으로 쓴 것이라면, "다른 연구자와의 입장 차이를 本書 안에 명기하고 비판을 가했어야 했다"(166쪽)고도 비판하였다.

18) 廣瀬憲雄, 「倭國・日本史と東部ユーラシア -6~13世紀における政治的連關再考」, 『歴史評論』 872, 2010; 同,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 『歴史評論』 752, 2012; 同, 『古代日本外交史 -東部ユーラシアの視点から讀み直す』, 講談社, 2014. 또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에 의하면 히로세는 2010년 5월의 역사학연구대회 보고 전에 행한 같은 해 2월의 준비보고까지는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때 '동아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동아시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동양사에서 사용되던 '동부유라시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12쪽).

유라시아사'의 계보에 속한다.

다만,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이래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비판해 온 히로세는 그 용어의 변경을 단순한 지역적 시야의 확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히로세에 의하면 그것은 '동아시아 세계론'이나 그것과 동시기에 제창된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東夷의 小帝國論'에 대한 사고 틀의 변화이고, "국제관계를 중국왕조와 주변 세력들의 군신관계가 아니라 중국왕조도 포함한 세력들 상호간의 非군신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중국왕조의 상대화)"는 것이며, "일본사의 전개를 과대하게 평가된 중국왕조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내의 움직임도 충분히 포함하여 생각한다(국제적 계기의 상대화)"라고 말한다.¹⁹⁾ 이는 동양사 일반의 사고방식과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9세기 이후 아시아해역과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해 온 야마우치 신지(山内晉次)도 거의 동시기에 '동부유라시아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9세기 전반 아시아 동부의 역사변동을 검토하였다. 야마우치가 말하는 '동부유라시아 세계'는 "일본·중국·한국이라는 이른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동아시아'와 그곳에 펼쳐진 해역세계 및 몽골고원·티베트고원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를 합친 광역의 역사세계"²⁰⁾ 이고 이는 일본의 동양사 일반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해역 아시아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야마우치는 그 발표 직후의 논고에서 용어와 범위를 수정하였는데, 즉 용어를 '동부유라시아'로 하여 '세계'를 빼고 그 범위를 '동아시아(일·중·한·북한) + 동북아시아 + 북아시아 + 중앙아시아 + 동남아시아'로 조금 확대하였다.²¹⁾ 이것은 얼핏 해역세계를 제외한 것 같지만 '동부유라시아'의 '내

19) 廣瀬憲雄,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 6쪽.

20) 山内晉次, 「9世紀東部ユーラシア世界の変貌 -日本遣唐使關係史料を中心に」, 角田文衛 監修·古代學協會 編, 『仁明朝史の研究 -承和轉換期とその周辺』, 思文閣, 2011, 4쪽.

륙세계’ ‘해역세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규정에서는 그 육지에 인접한 해역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원래 硫黃交易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틀을 넘은 해상교역의 동향을 추적하여 일본 ‘해역아시아사’ 연구의 일익을 담당해 온 야마우치이므로 ‘해역세계’를 넣어 ‘동부유라시아’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야마우치의 ‘동부유라시아 세계’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에다 노부의 ‘동유라시아’와 가깝고 실제로 최초 논고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로 우에다만을 들었다.²²⁾ 다만 이 시점에서는 우에다의 시대적 限定에 주의하였지만, 이후의 논고에서는 이 한정이 사라졌다.²³⁾ 또 야마우치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외교역을 연구주제로 삼은 미나가와 마사키(皆川雅樹)도 ‘동부유라시아’라는 틀을 사용하여 ‘唐物(일본으로의 외래품)’의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그는 우에다 노부의 지역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시대적인 한정에 유의하지 않았다.²⁴⁾ 이 점은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야마우치는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일본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자칫 일·중·한(북한)이라는 범위에서 고찰을 마치는” 것과 “어디까지나 고찰의 중점을 일본에 두어 일본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듯한 연구시선의 일방통행적인 경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그러한 연구는 일·중·한으로 완결되는 이른바 ‘三國史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삼국사관적인 ‘동아시아사’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층 넓은 시야에서 보다 더 유연하게 역사의 ‘연결’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21)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歴史評論』 733, 思文閣, 2011.

22) 山内晉次, 「9世紀東部ユーラシア世界の変貌 - 日本遣使關係史料を中心に -」, 27쪽.

23)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55쪽.

24) 皆川雅樹, 「日本古代の對外交易と『東部ユーラシア』」, 『歴史學研究』 885, 2011, 35쪽.

생각하였다.²⁵⁾ 그래서 역동적인 역사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가설로서 '동부유라시아'를 설정한다고 한다.²⁶⁾ 이러한 야마우치의 논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비판이 '동부유라시아'의 논의나 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틀에 얽매인 연구자의 자세[あり方]로 향해 있고, 그 극복수단으로 별개의 지역설정을 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야마우치는 그에 이어서 '동아시아 세계론' 자체를 비판하여 "원래 그러한 공통된 지표(유교·불교·한자·울릉제: 후루하타 주석)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완결적인' 역사세계 등이 실제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말한다.²⁷⁾ 이는 그때까지의 실증이나 논리와 연결되지 않고 야마우치에게 혼란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 점은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오해로서 李成市에게 엄하게 비판받고 있다.²⁸⁾

고대 일본 대외관계사의 대가인 스즈키 야스타미는 새롭게 발견된 '梁職貢圖' 題記의 逸文을 검토하여 거기에 묘사된 梁의 국제관계·국제의식·국제질서의 범위, 즉 서쪽은 波斯國(사산조 페르시아·滑國(에프탈)에서 동쪽으로 한반도·일본열도까지는 여러 국가·민족이 접촉하여 서로 교류하고 혹은 대항하면서 다양한 국제질서와 복선적으로 연결된 지역·공간이 만들어졌고 나아가 그들을 넓게 포섭하는 사회의 공통성·보편성을 지닌 '동부유라시아 세계'를 설정[假想]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동부유라시아 모델'이라는 지역권 모델로서 구상하면 중국왕조를 중심점으로 하는

25)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40~41쪽.

26)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53~54쪽.

27)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54쪽.

28) 李成市, 「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岩波講座日本歴史 22, 歴史學の現在』, 岩波書店, 2016. 뒤에 『鬭争の場としての古代史 - 東アジア史のゆくえ』, 岩波書店, 2018(이성시 저, 박경희 역,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동아시아사의 행방』, 삼인, 2019)에 수록.

큰 지역권 안에 동아시아·인도·동남아시아·내륙아시아 등에 독자적인 중심을 지닌 지역권이 있다고 하는 중심(중양)-주변(周緣)(중심)-변두리(邊緣)(주변)이라는 三層의 연관구조가 된다고 한다.²⁹⁾ 스즈키의 '동부유라시아 세계'는 그 설정 범위가 가장 넓어 '동아시아 세계'를 그 안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부유라시아'라는 표현이 보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다른 논자의 문제의식과는 다르고 접점도 그다지 없다.³⁰⁾

지금까지 일본사 연구자의 '동(부)유라시아사론'을 살펴보았지만, 논자 상호 간의 영향관계는 별로 없고 지역설정과 문제의식도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2012년 사이에 차례차례로 '동(부)유라시아사론'이 등장한 것에 대해 히로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은 동부유라시아의 '난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필자의 것도 포함한 동부유라시아라는 틀이 일본사학계에서 동아시아를 넘어선 '동아시아'의 침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종래에 동아시아 세계로 다루어져 온 중국·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틀의 한계는 동부유라시아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적어도 일본 고대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대체할 개념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중국의 북방·서방도 포함하는 형

29) 鈴木靖民, 「東アジア世界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史 -梁の國際關係・國際秩序・國際意識を中心に」, 『専修大學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6, 2012; 同, 「東部ユーラシア世界史と東アジア世界史 -梁の國際關係・國際秩序・國際意識を中心として」, 鈴木靖民 編,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2014; 同, 「東部ユーラシア世界史と東アジア世界 -梁の國際關係・國際秩序・日本古代と世界構造」, 『文學・語學』214, 2015.

30) 앞 주에서 제시한 스즈키의 각 논문에는 註가 없고 참고문헌밖에 들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히로세의 연구만 게재되어 있다.

태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자를 포함하는 여러 논자들이 서로 앞뒤에서 동부유라시아라고 하는 틀을 제시했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연구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할 것이다.³¹⁾

요컨대, 일본 고대사 연구자들의 ‘동(부)유라시아사론’에서 공통되는 것은 ‘동아시아 세계’론의 한계성과 그것을 대신하는 개념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동(부)유라시아사론’이 일본 고대사 연구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왕성하게 펼쳐온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의 계보 속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IV. ‘동(부)유라시아사론’ 비판

‘동(부)유라시아사론’에 대한 비판은 2014년 전후부터 심해지지만, 그것은 오로지 일본사 연구자의 그것에 대한 것이다.³²⁾ 일본사 연구자의 동(부)유라시아사론은 종래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주장된 것이므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31) 廣瀨憲雄,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 6~7쪽.

32) 동양사 연구자의 설정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다나카 후미오(田中史生)가 중국 중심사관의 상대화라는 관점에서 ‘파미르고원 동쪽’의 지역공간을 잘라내는 것은 어렵다고 한 비판이 있다(田中史生, 「越境する古代」, 『歴史評論』 799, 2016, 13쪽). 다나카는 그 예로 ‘동부유라시아’의 소그드인 활동도 파미르고원에 있는 고향으로부터의 ‘동방활동’이라는 점을 든 뒤, ‘동부유라시아’도 중앙아시아 세력들에 주축을 두어 서방과의 관계도 포함한 역사를 구축한다면 새로운 역사의 연관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비판은 동양사에 의한 ‘동(부)유라시아사론’이 애초에 중앙유라시아사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난 것을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이다.

그것이 대체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점에서는 6~8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여 '일본'국 성립의 제반 조건을 검토한 이성시가 결론적으로 '동부유라시아론'에서는 '일본'국 성립의 의미를 논하는 것이 어려우며,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수당시대의 국제질서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질서세계를 동아시아 세계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³³⁾ 요컨대 '동(부)유라시아'는 '동아시아 세계'의 대체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은 쿠마가이 키미오(熊谷公男)에게도 보인다.³⁴⁾ 본래 이들에 대한 반론이 되어도 좋을 히로세 노리오의 저서는 '동부유라시아'에서의 관계·질서의 다양성과 유동성, 역학관계의 변화 등을 추적하면서 특정 중심국가의 존재나 외부로의 규정성을 부정한 결과, 각 나라나 각 민족의 독자성과 질서가 강조되고 일본국 내부의 역사전개와 외부세계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는 것이 되었다. 히로세는 역사적 연관관을 부정하는 의도로 적고 있고, 이는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나 그것에 의한 고대 일본외교의 설명은 총체적으로 과거의 一國史觀的 해석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히로세가 의거한 동양사의 '동부유라시아' 개념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연구자에게 심어주는 결과가 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야마우치가 서술한 이해의 근거에는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를 '경직된 틀'로 파악하는 이해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무라이 쇼오스케(村井章介) 등의 海域史 연구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³⁵⁾ 이에 대해 이성시는 '경직된 틀'로 비판받는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문화권 이해는

33) 李成市, 「6-8世紀の東アジアと東アジア世界論」, 『岩波講座日本歴史 2, 古代 2』, 岩波書店, 2014, 244쪽, 250쪽.

34) 熊谷公男, 「倭王武の上奏文と5世紀の東アジア情勢」, 『歴史と文化』 53, 2015, 3쪽.

35) 村井章介, 「〈地域〉と國家の視點」, 『新しい歴史學のために』 230-231合併号, 1998.

‘자기완결적인 세계’라고는 규정할 지라도 지역을 고정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무라이와 아마우치 등의 이해를 오해로 간주한 뒤 니시지마의 문제의식을 읽어내지 못하고 ‘경직적인 틀’이라는 정서적인 비판을 반복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³⁶⁾

아마우치의 ‘동아시아 세계론’ 비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자체의 논리·문제의식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도 그 틀에 사로잡힌 일본사 연구자의 자세에 대한 비판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동일한 것은 히로세에게도 말할 수 있다. 히로세는 여기저기에서 일본의 역사적 전개를 국제정세의 과도한 緊張化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현재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고 있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이 등장하게 된 연구사적인 흐름을 상세히 논하는 반면 그 후의 연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라는 연구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 고대사 연구자의 일부는 니시지마의 ‘책봉체제론’ ‘동아시아 세계론’이 등장한 당초부터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다양한 역사해석에 원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본 고대사 연구자 측이 보인 수용의 역사는 논외로 해도 그것들의 문제점을 ‘동아시아 세계론’ 자체의 문제로 바꾸는 경향이 아마우치와 히로세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과도 관련하여 문제인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중·일·한으로 지역범위가 한정된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과 대치되어야 할 호리 도시카즈의 ‘동아시아 세계론’³⁸⁾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리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니시지마가 중시한 책봉관계를 ‘羈縻’로 총칭된 중국왕조의 이민족 지배 방식의 하나로 간

36) 李成市, 「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47~48쪽, 66~67쪽.

37) 예를 들면 廣瀬憲雄, 『古代日本外交史 - 東部ユーラシアの視点から読み直す』의 「外交史と國內史の奇妙な對立」, 228~229쪽.

38) 5쪽 註③ 참조.

주하여 상대화하고, 주변 국가·민족들의 주체성도 인정하면서 중국왕조를 축으로 한 국제질서를 묘사한 것으로, 그 때문에 북아시아 세계와 내륙 아시아 세계의 몽골고원과 티베트도 동아시아 세계 안에 포함되었고 오히려 중국왕조에 있어서는 이쪽이 중요했다고 간주하였다³⁹⁾. 호리가 말하는 ‘동아시아 세계론’의 문제의식은 니시지마와 달리 중국왕조의 세계관(천하관) 및 그것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특질을 밝히려는 데 있지만, 그래서 설정된 지리범위는 못 연구자의 ‘동(부)유라시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요컨대 동양사 일반의 ‘동(부)유라시아’와의 차이는 문제의식의 차이, 다시 말하면 중국을 상대화할 것인가 아닌가에 있을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스가누마가 호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동부유라시아’를 제창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 고대 대외관계사 연구자가 중국의 북방·서방도 포함한 형태로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편의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는 히로세의 이해도 1960·1970년대에 ‘동아시아 세계론’이 활발하게 논의될 당시 호리가 차지한 존재감의 크기를 생각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동(부)유라시아 세계’인가 혹은 ‘동(부)유라시아’인가

‘동(부) 유라시아사론’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하고 싶은 것은 ‘동(부)유라시아’의 뒤에 ‘세계’를 붙이는 경우와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이다.

39) 니시지마와 호리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가네코 슈이치(金子修一), 「東アジア世界論」,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 1,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정병준 역, 「동아시아 세계론」, 『역사와 교육』 12, 2011)이 상세히 검토하였다.

지금 거론한 논자들로 말하면 모리베·스즈키는 ‘세계’를 붙이고, 후루마쓰·스기누마·히로세·미나가와는 붙이지 않으며, 아마우치는 처음에는 붙였으나 그 후 붙이지 않았다. 이는 ‘동(부)유라시아사론’과 대치하는 니시지마와 호리의 논의가 ‘동아시아 세계론’으로 불리며 정착한 것과 대조적이다.

니시지마와 호리가 ‘동아시아’를 ‘세계’로 간주한 것은 공통의 문화요소를 중시하는가 어떤가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가 역사의 유기적 연관 및 구조적 특질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고 세계사적 시야로 보면 전근대에 있어서 병존한 역사적 세계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동(부)유라시아’에 ‘세계’를 붙인 모리베·스즈키가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애매하다. 모리베의 경우는 왜 ‘세계’를 붙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스즈키의 경우는 그 검토의 출발시점에서 梁의 국제의식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면 ‘세계’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의 세계관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그려지는 서방의 에프탈 세계, 페르시아 세계, 인도 세계는 양을 중앙(중심)에 둔 광역세계 = ‘동부유라시아 세계’의 아래에 있는 圏域(小세계)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스즈키의 ‘동부유라시아 세계’는 이질적 세계를 하위에 둔 절대세계인 것이고, 니시지마나 호리가 염두에 둔 세계사적 시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부터 세계사적 시야를 射程에 둔 논의도 구축하기 어렵다.

이러한 스즈키의 ‘동부유라시아 세계’와 세계사적 시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이오 히데유키(飯尾秀幸)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다.

전근대의 세계사는 지금까지 몇 개의 ‘독립된’ 세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고, 동아시아 세계도 그 중 하나로 그 지역에 공통되고 다른 세계와는 구별된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세계사로 그 전개가 서술되어 왔다. 동

아시아 세계사론은 유라시아 세계사론에 의해 상대화될 것인가. 또 동아시아 세계사는 각 세계 간 즉 내륙아시아 세계와 북아시아 세계와 접촉·충돌·연동한 것으로 기술되어 왔지만 그것이 그들 세계를 포함한 동부유라시아 세계 안에서의 변동으로 일체화시켜 고찰하는 쪽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지역으로서의 동부유라시아가 아니라 동부유라시아 세계라고 하는 경우, 애초 그것은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한 것일까. 동아시아 세계사론과 비교하면 이들은 바로 검토과제로 떠오를 것이다.⁴⁰⁾

이이오는 그 후의 논고에서 이때 스즈키의 ‘동부유라시아 세계’라는 사고방식에 대해 “북아시아 세계, 내륙아시아 세계, 남아시아 세계, ‘동아시아 세계’라는 세계들이 통교하고 또 서로 부딪친다고 하는 역사서술 쪽이 ‘동유라시아 세계’ 내부의 역사적인 전개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한다.⁴¹⁾ 후루마쓰와 히로세 등이 ‘동(부)유라시아’에 ‘세계’를 붙이지 않고 광역적 틀로서 설정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또 야마우치와 같이 교류를 축으로 하여 다이나믹한 역사의 ‘연계’를 밝히려는 경우도 ‘동부유라시아’를 통합성이 있는 ‘세계’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분석방법과 모순될 가능성이 높고, 광역적 틀로 설정해야만 ‘동부유라시아’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으로 보는 한 문화적 공통성과 구조적인 것을 가진 하나의 ‘세계’로서 ‘동부유라시아’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광역적 틀로서 ‘동부유라시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⁴²⁾

40) 飯尾秀幸, 「古代東アジア世界史論をめぐって」, 『専修大學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6, 2012, 207쪽.

41) 飯尾秀幸, 「研究プロジェクトを開始するにあたって」, 『専修大學東ユーラシア研究センター年報』1, 2015, 3쪽.

42) 필자는 『渤海國とは何か』, 吉川弘文館, 2018에서 ‘동부유라시아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유의 하나는 발해를 포함해 명준하는 각각의 광역 틀의 명칭 모

VI. 맺음말

이상으로 2010년 이후 ‘동부유라시아’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여 등장한 ‘동(부)유라시아사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소개·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술로 보건대 현 시점에서 ‘동(부)유라시아’가 ‘동아시아 세계’를 대체할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 한편으로 광역 틀로서의 ‘동(부)유라시아’에는 밝히려고 하는 역사적 과제에 의해 유효성이 있고 여기서 거론한 이외의 역사적 과제에서도 유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⁴³⁾ 다만 현재 ‘동(부)유라시아’의 개념들은 난립상태이고 ‘동아시아’와의 구별 방식도 불명확하다. 10세기 이전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동(부)유라시아’라는 개념을 보다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정리가 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그 정리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동(부)유라시아’는 난립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미 동양사에서 파미르고 원 이동의 유라시아대륙이라는 지역설정이 일반화하였고 그것에 기초한 역사과제 분석의 유효성도 나타나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역설정을 답습하는 것이 좋고, 분석과제와의 관계에서

두에 ‘세계’를 사용하여 표현상의 통일을 도모한 것에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의 고찰로 보면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앙유라시아 세계’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 범위가 근래에는 만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부 유라시아 세계’ 쪽이 타당하다 판단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本書의 집필 시점에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스기야마 키요히코(杉山清彦), 「中央ユーラシア世界 - 方法から地域へ」(前掲)가 만주를 다른 세계와의 이중성을 가진 ‘중앙유라시아’의 외연부로 간주하고 그 범위 안에 편입시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현 시점의 필자는 스기야마 설에 따라 ‘중앙유라시아 세계’로 해도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43) 이 검토 결과와 동일한 인식은 이미 林美希, 「2013年の歴史學界 - 回顧と展望: 東アジア(中國~隋·唐)」, 『史學雜誌』 123-5, 2014, 218쪽에 보인다.

굳이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정확하게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동양사에서의 '동(부)유라시아'는 중앙유라시아사와 중국사의 연관이라는 시점과 중국사의 상대화라는 문제의식을 안고서 단련되어 온 개념이다. 그와 동시에 그 배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여 역사를 크게 조망하려는 구상이 있다. '동(부)유라시아'는 단순한 지역설정이 아니라 이러한 시점·문제·구상을 포함하여 지역설정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설정을 하는 경우, 예컨대 중국에게 그 어떤 중심성을 인정하여 지역설정을 하는 경우는 '동아시아'를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일본 고대사에서 일반적인 중·일·한에서부터 파미르 이동의 유라시아대륙 혹은 그보다 넓은 세계까지 얼마간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그 쪽이 어떠한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혼란이 적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과제에 따라 어떠한 범위를 '동아시아'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조건을 항상 붙여서 논의하는 것을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또 '동아시아' = 중·일·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의 공통성과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아시아'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상으로 과제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권'·'동아시아 세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세계'에는 호리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밝히려고 하여 사용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선협적으로 중·일·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운 현재의 경향을 고쳐 제대로 지리범위와 문제의식을 명시하여 사용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附記〉

이 글은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일반)「中國の渤海史研究草創期についての史學史的研究 -金毓黻を中心に」(平成27~30年度) 연구성과의 일부이다. また, 南開大學 歴史學院·韓國研究中心 主辨, 「古代東亞的交流與互動」 工作坊(2018년 6월 19일)에서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왜 동(부)유라시아 사인가: 근년의 일본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의 신동향」, 『南開史學』 2019-2, 2020년 1월, 33~49쪽. (張汝 번역)의 일본어판이다. 중국어판에서는 필자의 책임과 관련된 몇 개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것들을 수정하였다.

또 이 글은 어디까지나 2018년 6월이라는 시점에서의 '동(부)유라시아사론'에 대한 논점 정리이다. 이 시점에서 찾아보지 못한 논고와 그 후 발표된 논고와 몇 개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廣瀨憲雄, 『古代日本と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關係』, 勉誠出版, 2018의 서장 「東部ユーラシアと東アジア -政治圏と文化圏の設定」(이유진 역, 「동부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정치권과 문화권의 설정」, 『동국사학』 69, 2020)과 『唐代史研究』 23(2020년 8월)의 《“東部ユーラシア論を考ふる” -2019年度夏期シポジウム特集》에 수록된 논고들(森部豊, 「中國「中古史」研究と「東ユーラシア世界」」; 古松崇志, 「10~12世紀ユーラシア東方における「多國体制」再考」; 橋本繁, 「古代朝鮮の出土文學史料と「東アジア文化圏」」; 廣瀨憲雄, 「日本史からの東部ユーラシア(世界)論」이다. 또한 『唐代史研究』 23에는 히로세의 2018년 저서에 대한 카와카미 마유코(河上麻由子)의 서평도 있는데, 여기에도 '동(부)유라시아사론'의 문제점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 있다. 새로운 논점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여기서 하지 않고 훗날 다시 논점을 정리할 것을 기약한다.

또, 필자의 『渤海國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021의 「서장 왜 '발해국과 동아시아'인가」에도 '동(부)유라시아사론'이라는 사고방식 및 그것과 '동아시아사론'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겠다.

〈追記〉

이 글을 교정하던 중에 黃東蘭, 「東部ユーラシア」は「東アジア」に取って代わるのか -近年の「東アジア世界論」批判を踏まえて, 『愛知縣立大學外國語學部紀要』52(地域研究·國際學編), 2020)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글의 견해와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논점정리의 착안점과 문제의식이 가깝고 이 글을 보완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부디 참조해 주길 바란다.

